



# DB월드뉴스(국내)

## • NEWS Point •

### DB 뱅크

#### 데이콤(천리안)

#### 국회도서관, 입법기관으로는 최초로 자체 DB공개

데이콤(社長:孫益壽)은 최근 국회도서관(館長:朴鍾逸)과 「국회도서관 문헌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부터 개인들은 국회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고서도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개인용컴퓨터를 이용, 천리안과 연결하여 1백50만건에 달하는 각종문헌정보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3월말 현재 국회도서관이 보유중인 문헌정보는 국내의 정기간행물 70만건을 비롯, 국내 석·박사 논문 30만건을 포함, 모두 1백50만여건에 달해 현재 천리안에 제공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22만건, 광주중앙도서관 3만5천건에 비해 국내 최대의 정보문헌 보고로 꼽히고 있다.

데이콤은 우선 1단계로 국회도서관으로 부터 마그네틱테이프(M/T)를 받아 「국회도서관 문헌정보」를 제공하되 빠르면 6월부터 국회도서관의 호스트컴퓨터와 천리안 호스트컴퓨터를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연결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 천리안, 사진정보제공 - 생동감 있는 그래픽 통신

- 256칼러 이미지 파일 온라인상에서 직접출력
- 직접사진을 보며 상품주문, 컴퓨터 중매 등 다양한 활용가능

문자로 된 정보만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되던 컴퓨터 통신이 이제는 사진이나 이미지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직접 상품의 사진을 보며 온라인으로 주문하거나, 관련된 사진 자료를 함께 보며 정보(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3월 30일부터 데이콤이 통신 소프트웨어인 「데이콤링크II」에 이미지 파일 출력

기능을 부가한 개량형(VERSION 3.0)을 개발, 무료로 보급하면서 종합정보서비스인 천리안에 사진자료가 첨부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면서 비롯 되었다.

기존 텍스트 위주의 문자정보에서 탈피, 문자와 그림/사진을 동시에 제공하는 화상정보는 기존 문자정보가 제공하는 한계를 극복할뿐 아니라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이미 지업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새로운 정보전달 매체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산가족찾기', '미아찾기', '컴퓨터중매' 등 사진을 첨부할 경우 더욱 유용해지는 신규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어지며, 이를 광고나 홍보매체로 활용할 수도 있다.

천리안의 이미지 파일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슈퍼 VGA카드가 장착된 개인용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통신소프트웨어 [데이콤 링크 II 3.0버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천리안 공개 자료실 추천공개자료 항목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정보통신 동향’ 정보 통신 세계를 한눈에**

일상적인 말이 되어버린 ‘정보통신’, 그 정보통신을 더욱 가깝게, 또는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제공하는 “정보통신 동향” 서비스 한다.

컴퓨터와 통신분야 정기간행물의 초록 및 서지(서적)사항과 정보통신 관련업체 소식 및 제품에 대한 소개를 상세하게 제공할 '정보통신 동향' 서비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보 통신세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정보통신동향을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메뉴(GO CCINFO) 7번 선택, '뉴스/날씨/스포츠'의 52번을 선택하면 된다.(제공업체 : 코스모 정보통신)

### **취업의 희소식,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정보— <매경SCOUT>**

인재소요기관과 취업대상자, 인재양성기관을 모두 연결하여 종합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매일경제신문의 '종합취업정보'를 천리안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인과 구직자간의 온라인 연결, 각종 취업관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또한 취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 체계를 일원화하고 취업뉴스, 고용정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매경SCOUT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메뉴(GO MSCOUT) 8번 선택, '교육/문헌/취업'의 49번 '매경SCOUT'를 선택하면 된다.(제공업체 : 매일경제신문사)

### **삼성 HP 고객교육센터 개설**

국내 최고의 컴퓨터 교육기관인 “삼성 HP 고객교육센터”가 천리안 기업홍보광장에 개설되어 'UNIX 시스템/프로그램 과정' 등에 대한 교육안내를 자세하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수강 등에 필요한 교육신청도 천리안을(GO SHPEDU)통해 할 수 있다. 삼성 HP고객교육센터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 메뉴 15번 '기업홍보광장'의 31번(GO SHPEDU) TJSXOR, '삼성 HP 고객교육센터' 선택하면 된다.(제공업체 : 삼성 휴렛팩커드)

### **(주)코리아컴퓨터와 다우데이터시스템 개설**

(주)코리아컴퓨터는 기업홍보광장을 통해 H/W, S/W 정보와 함께 교육용 S/W인 CAI CAROL를 비롯하여 코리아컴퓨터 전 제품에 대한 안내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주)다우데이터시스템의 기업홍보광장에서는 dBASE와 윈도우, 볼랜드C를 포함한 Language 등, 다우데이터시스템 제품 안내와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주)코리아컴퓨터와 다우데이터시스템을 이용

하려면 천리안 TOP와 다우데이터시스템을 메뉴 15번선택, '기업홍보광장'의 30번과 31번 '(주)다우데이터시스템', '(주)코리아컴퓨터' 선택하면 된다.

### **"컴팩컴퓨터, 씨엠티코리아"**

컴팩컴퓨터를 통해 컴팩컴퓨터에서 취급하는 제품 안내/소개와 함께 기술정보 및 신제품에 대한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컴퓨터 기기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씨엠티코리아 기업홍보광장을 통해서도 씨엠티코리아의 제품 소개와 S/W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코너 게시판 등이 개설됐다.

컴팩컴퓨터와 씨엠티코리아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 메뉴 15번 선택, '기업홍보광장'의 28번과 29번 '컴팩컴퓨터, 씨엠티 코리아' 선택하면 된다.

### **노동법/근로기준법/노동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노동에 관한 각종 정보를 천리안을 통해 제공한다.

그동안의 축적된 노동정보를 제공하게 될 노동정책연구소의 '노동조합정보'는 여러가지 노동정보를 제공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노동종합상담실"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조합정보를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메뉴 12번(GO TU) 선택, '기업/무역/세무/물가/인물'의 12번 '노동조합정보'를 선택하면 된다.(제공업체 : 노동정책연구소)

### **<불교자료실> 불교의 역사와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천리안에서는 불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불교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불교자료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유익

한 정보가 될 것이다.

불교자료실을 통해서선 전국사찰 안내와 불교역사인물, 불교계인명록, 불교도서목록, 상식백과, 부처님일대기 등을 제공해 준다.

불교자료실을 이용하려면 천리안 TOP 메뉴 8번(GO BBSDATA)선택, '교육/문헌/취업'의 30번 '불교자료실' 선택하면 된다.(제공업체 : 불교방송)

### **TOP 메뉴 7번 '뉴스/날씨/스포츠' 메뉴의 신소한 변신**

중앙지와 지방지, 경제/전문/해외뉴스, 날씨와 스포츠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뉴스/날씨/스포츠" 메인메뉴를 개편하여 서비스 한다.

새로이 [잡지종합목록]을 추가하고 [주간/월간지] 메뉴를 화면 오른쪽 상위로 서비스 위치를 이동하며 [정보분야별 동시검색] 서비스는 서브메뉴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개편한 내용을 보면 \* [잡지종합목록] 서비스 추가, \* [정보분야별 동시검색] 서비스가 서브메뉴로 개편되었으며, \* [주간/월간지] 서비스가 화면 오른쪽 상위로 메뉴 위치가변경 되었다.

### **운송, 무역에 관한 종합정보, 운송종합정보 신규 메뉴 추가**

해운/운송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운송종합정보" 새로 추가되었다. 운송종합정보에 새롭게 추가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금륜정보", 금륜정보는 항만, 무역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에서 제공하는 "운송종합정보"로 해운과 무역의 전문가가 되어 보길 바란다.

운송종합정보의 메뉴추가로는 \*국내해사단체 및 업체 현황, \*해사인명록, \*해운물류 용어해설, \*카페리, \*연안여객선 등이다.(제공기관 :

코리아쉬평가제트)

## 한국 PC통신 (HiTEL)

### 공공DB 이용 활발

최근들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공 DB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PC통신(대표 김근수)에 따르면 한국통신의 위탁을 받아 개발하여 하이텔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30여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각종 공공DB 이용시간 및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3월에 7만8천 여명이 공공DB 및 민원서비스와 관련정보검색을 이용했으며 이용시간은 11만3천여 시간, 이용횟수면에서는 19만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이용자수·이용시간·이용횟수가 각각 6만8천여명, 10만여 시간, 17만여건으로 평균 10% 이상의 이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개설된 서울의 송파구청·중랑구청과 부산시청·진주시청 등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는 최근들어 월 4천 여통의 서류가 발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하이텔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공공DB는 청와대 큰마당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인천경찰청·공군본부. 서울의 구청·시청 등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농업유통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소비자보호원·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30개에 이르고 있다.

한국PC통신은 한국통신의 위탁을 받아 개발하고 있는 각종 공공 DB뿐만 아니라 전문 정보제공자(IP)유치를 통한 일반 전문정보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 산업교육정보시스템 산업교육관련DB구축 PC통신

### 신용해 공개

산업교육정보시스템은 최근 국내외의 다양한 산업교육관련 DB를 구축하고 이를 PC통신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한국PC통신의 하이텔을 통해 제공되는 산업교육정보는 산업 교육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여 명의 강사정보와 전국의 교육장소, 교육전문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또 국내 10대 그룹연수원, 각종 공개 세미나 교육, 강연회, 산업전시회, 통신교육, 논문초록, 미디어자료 등이 들어 있다.

### 특허청 - PC통신으로 특허애로 상담

특허청에서는 PC통신을 이용하여 특허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허행정과 관련한 불만등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PC통신대민봉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허정보 서비스와 발명인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특허청 직원들이 작년 10월부터 발명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HiTEL 회원에 대한 대민 서비스확대를 위하여 발명동호회 메뉴에 특허 애로 상담센터의 메뉴를 추가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전화망을 통하여 PC통신을 할 수 있는 출원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인 PC통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HiTEL과 연계하여 출원인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받지 않고 특허행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발명동호회로 접수되는 특허행정에 대한 애로사항은 특허청내에 설치되어있는 특허애로상담 센터에 접수되어 관계관에 의해 처리된다. 또한, 발명동호회에서는 PC통신으로 특허출원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차, 특허출원서 작성방법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모든 안내는 물론 특허 행정에 관한 건의사항도 받고 있다.

위 정보를 이용하려면, 어느 화면에서나 'go pat'을 입력하거나, 초기화면(top)에서 14번 동호회 -> 10번 과학/기술 -> 9번 발명동호회를 입력하면 된다.

### 생활법률정보 서비스 개시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률과 관계된 문제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이텔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생활법률정보'를 제공한다. 한국통신의 공공DB개발계획에 의해 개발된 '생활법률정보'는 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례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법률과 관계된 곤란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곧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17번 '공공정보' -> 52번 '생활법률정보' 선택, 궁금해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재정보 개설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인 4월 11일부터 문화재정보가 새로이 선을 보였다.

문화재정보에는(4월 11일 현재) 국보, 사적 일부, 천연기념물 일부 그리고 각 지역 박물관 정보가 제공되며,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등의 정보는 자료가 준비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이다.

각 정보는 해당 문화재에 대한 설명과 상세한 그림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문화재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안내지도 정보, 주변 관광시설, 숙박시설, 요금정보, 소요시간정보등 다양한 정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문화재 정보는 "종류별로 찾기", "지역별로 찾기", "주제별로 찾기"등의 다양한 검색방법이 제공되며 주제어 검색에서는 문화재명과 지정번호, 지역명등으로 보다 빠르고 손쉬운 검색을 할 수 있다.

문화재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용프로그

램 1) HiCOM 2.1, 이야기 6.0이상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정보를 이용하려면 하이텔 초기화면에서 17번 공공정보 -> 64번 문화재 정보를 선택하거나 하이텔의 어느화면에서 든지 go mun 또는 go 문화재를 하면 된다.

### 삼성그룹의 채용정보가 하이텔을 통해 서비스

기업이념인 '인재제일'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될 이번 서비스(go samsung)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사외보, 인재제일을 통해 소개된 국내외 최신학습정보,기술상식, 국제화상식 및 일반교양문화관련 내용을 인재제일 코너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삼성그룹소식과 인재제일 독자방을 통해 기업과 대학이 한층 가까와 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제공되는 취업뉴스는 삼성그룹채용과 관련한 갖가지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예정이다.

삼성그룹 '인재제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5.교육취업 -> 4.취업 -> 31.삼성인력관리위원회(samsung) 또는, 5.교육취업 -> 5.대학정보 -> 31.삼성인력관리위원회(samsung)을 선택하거나, 하이텔 어느 화면에서나 'go samsung'하면 된다.

### PC월드,이제 온라인을 통해 직접 만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즐길 수 있는 컴퓨터 초보자용 학습지"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90년 12월 첫선을 보인 「PC월드」가 지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독자들과 만난다.

PC월드는 지난 '91년 1월부터 큰틀(KNTL)내에 게시판을 개설,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의 발길이 잦아짐에 따라 더욱 다양한 정보로 서비스하고자 새로이 방을 마련하게 되었다.

PC월드(go pcworld)에는 매달 잡지에 실린 기사내용이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공되며 그림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실 산책"도 서비스 된다.

"월드 안테나"에서는 각종 전시회 및 새소식, 새상품 관련소식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또한 자료를 찾기 위해 이 책 저 책을 뒤져야하는 불편을 없애기위해 월별과 주제어를 이용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독자들의 궁금한 점이나 PC월드에 하고 싶은 이야기등을 즉시 수렴할 수 있는 "컴퓨터 사랑방"도 마련하였다.

PC월드를 이용하려면 초기화면에서 3. 뉴스/인물 --> 14잡지 --> 2. PC월드순으로 선택하거나, 하이텔 어느화면에서나 'go pcworld'를 하면 된다.

### 환경만화 및 환경마크제도 서비스

환경에 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하이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정보에 환경만화 및 환경마크제도가 신규 서비스된다.

만화로 보는 자연보호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던 환경만화가 기존의 별난 여행과 모두가 건강한 이웃외에 MR.환경 1, MR.환경 2, 우리는 환경가족 1, 우리는 환경가족 2 등 다양한 내용의 환경보존 만화가 서비스 된다.

또한, 환경보존의 적극적인 방법이자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환경보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마크제도의 홍보와 환경마크를 획득한 상품의 안내를 위해 기존 환경정보의 4.환경상식에 환경마크를 제공한다.

환경정보의 이용방법은 초기화면 \*8. 과학/문헌 \*2. 환경 \*1. 환경정보 또는 초기화면 \*17. 공공정보 \*68. 환경정보, 어느화면에서나 "go env"하면 된다.

### 에이텔(주) (POS - SERVE)

#### 꽃과 함께 와인을, <와인배달>서비스 개시

특별한 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할까 고민이다.이때 GO WINEHO 하여 분위기 있게, 꽃과 와인잔이 함께있는 와인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 가까이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맛있는 선물이 될것이다.

화(化)사랑에서 제공하는 <와인배달>서비스는 와인뿐만 아니라 위스키, 샴페인, 꼬냑, 북한명주, 한국전통명주 등 세계 각국의 유명 주류와 케익, 꽃을 함께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와인배달을 이용하려면 TOP메뉴중 14번(GO WINEHO) 선택, '예약/주문/오락'의 6번 와인배달을 선택하면 된다.(제공업체 : 화(化)사랑)

#### 공개자료실(GO DL) 메뉴변경 안내

공개자료실이 본격화 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4월 6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한 후 선보인다. 32bit 운영체제 사용자에게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indows & NT 용과 OS/2, UNIX 용 유틸리티를 위한 방을 따로이 신설하고 이용도가 높은 게임방을 Windows용과 DOS용을 분리하여 이용의 편리함을 더하게 될것이다. 또한 기존의 프로그램언어방과 하드웨어방, 데이터베이스방과 스프레드시트방을 통합한다. 다음달인 5월경에는 점차 증가하는 매킨토시 이용자들을 위한 매킨토시 자료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개편되는 14개의 자료실방에는 다달이 공개프로그램들의 천국인 세계 통신서비스에 올라오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저희 센터측에서 바로 공급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공지했듯이, 4월부터 자료실에 업로드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우수 공개자료와 인기자료등록자를 선정, 소개하며 소정의 상품도 지급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GO DL하여 4. 자료실 이용안내를 참고하기바란다. 7월초에는 현재 자료실의 부족한 기능사항을 보완, 좀 더 다양하고 편리한 검색기능의 구현과 현재의 자료오름차순 번호가 아닌 고유번호 부여를 통해 훨씬 편리하게 자료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 해외서비스 개시 2주년 기념사은행사

'94년 4월 1일로 POS-Serve가 해외서비스 CompuServe와 NIFTY-Serve를 도입, 서비스를 시작한 지 2주년을 맞이했다. 그 동안 POS-Serve의 해외서비스는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다. 아직까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해외서비스 개시 2주년을 맞이하며, 조금이나마 회원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은 행사를 열게 되었다.

우선 4월 중에는 '해외서비스 사용자 포럼을 통한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이 설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서 보내 주는 회원들에게는 CompuServe 사용자 매뉴얼(만오천원 상당)을 우송해 준다. 이 매뉴얼은 CompuServe의 영문 매뉴얼을 번역한 것으로 수량의 제한 때문에 우선 도착순서에 따라 250명에 한정하여 우송해준다. 그리고 이 설문을 보내주신 분들중 30명을 추첨하여, 저희 해외서비스 회원사인 캡스(caps)의 협찬으로 제공되는 FA(First Aid) 영어회화 <기본편> CD-ROM 타이틀 버전을 보내준다.

### 새로와진 <월드맨파워 취업정보>

POS-Serve를 통해서 대입정보, 유학정보를 제공해오고 있는 (주)월드맨파워가 기존 제공해오던 취업정보를 훨씬 간결하고 이용자 위주로 메뉴를 구성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등 새단장한 모습으로 4월 1일부터 선보인다. 구인정보

와 구직정보는 성별, 직종별, 학력별, 기업별 등으로 세분화되어 정보선별을 수월하게 하였으며 회원이 직접 구인/구직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메뉴를 삽입하는 한편 중요한 정보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메뉴가 간결해졌다.

### <게임/소프트웨어/주변기기>정보가 새로이 제공

새로나온 게임과 소프트웨어는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인지...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고 매우 간편하게 온라인상태에서 주문해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게임/소프트웨어/주변기기> 정보가 그러한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를 본 후,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만 하면, 편한 곳으로 배달해 준다.

게임/소프트웨어/주변기기를 이용하려면 TOP 메뉴 중 14번(GO GAMESW) 선택, '예약/주문/오락'의 5번을 선택하면 된다.

### 컴퓨터잡지를 온라인으로, <정보시대>가 제공

신문보다 빠르게 컴퓨터에서 뉴스를 보듯이 이제는 모든 출판되는 정보들을 컴퓨터로 먼저 접하게 되는 빠른 정보흐름의 한가운데 우리는 서 있게 된다.

이제는 매월초 컴퓨터 잡지가 서점에 나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컴퓨터로 곧바로 볼 수 있는 <정보시대>서비스가 4월 1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시대, 윈도우 세계 등의 잡지란과 정보통신계의 국내외 소식, S/W, H/W 소개 등의 흥미로운 정보들이 POS-Serve 회원들에게 제공된다.

정보시대를 이용하려면 TOP메뉴 18번(GO IA) 선택, '기사리뷰/문헌/인물'의 11번 정보시대를 선

택하면 된다.

## 국정뉴스

### 체신부

#### 체신부장관 한국전자통신연구소방문 업무보고

윤동윤 체신부장관은 대덕연구단지내 한국전자통신연구소 (ETRI)를 방문,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승택 ETRI소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오는 96년 세계정상수준의 연구소 실현을 위해 기초기반기술연구와 국책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소원의 의식 개혁추진 및 연구인력의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소를 운영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양소장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시스템의 기술개발 추진체계 및 상용화 시기 등에 대해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올해말까지 시제품을 제작하고 늦어도 95년 말까지 관련분야의 기술개발을 완료 하는 등 96년 상용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장관은 CDMA시스템의 기술개발실을 둘러보는 등 이 분야의 기술 개발추진 현황 및 상용화시기 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뒤 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연구원들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동요하지 않고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충청지역 체신부 KMT에 사용불허

충청지역 무선호출 서비스와 관련, 체신부가 한국이동통신(KMT)측에 1백60MHz대 주파수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한데 대해 무선호출기 제조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

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충청지역에서의 무선호출 서비스가 무선호출 제2사업자의 경우 충남과 충북 두지역으로 나뉘어 실시 되고 있으나 한국이동통신은 통합 실시되고 있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한국이동통신측에 기존의 1백60MHz대 주파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통보하고 10채널 부터 3백20MHz 주파수대역으로 서비스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무선호출기 제조업체들은 3백20MHz대 주파수용 기기 생산을 다음달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사전 통보없이 체신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업체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관련업체들은 기존의 1백60MHz주파수용 무선호출기 생산계획을 6~7월까지 잡아놓고 크리스탈 등 주요부품 및 자재를 발주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이 시행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 하고 적어도 3개월전에 업체들에게도 통보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완제품에 대한 재고물량이 제조업체는 물론 대리점에까지 상당 물량남아 있는 데다 9개월에도 아직 5만5천명정도의 가입자 여분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1백60MHz주파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정보통신, 통신사업 구조조정 임박

세계적인 정보통신업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통신사업 구조개편이 ‘종합통신회사’와 한두가지 서비스에 역점을 두는 ‘전문통신회사’로 나누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통신사업 구조개편은 개인휴대통신(PCS)이나 저궤도위성통신(LEO), 전화비디오서비스(VOD)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때에 도입하고 외국통신기업들의 거대화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6월까지 완료될 이번 구조개편작업은 21세기 최고의 산업으로 평가되는 정보통신산업의 구도를 확정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 작업을 위해 각계 통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신사업구조개편추진단'은 최근 한국통신·데이콤 등 업계 관계자들과의 토론을 거쳐 마련한 구조개편 시안을 체신부에 제출했다.

이 안은 국내 통신사업자를 각종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통신회사와 한두가지에 치중하는 전문통신회사로 나누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들도 대체적인 의견 일치를 봤다.

현재 국내 통신사업은 △'기간통신' 즉 전화를 포함한 유무선통신 △'부가통신' 곧 컴퓨터통신 등 각종 데이터통신으로 나뉜다. 기간통신은 다시 △유선통신인 일반통신 △무선인 특정통신으로 세분된다.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일반통신 사업자이고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사업자는 특정통신사업자이다.

기간통신을 유무선 구별없이 종합통신회사와 전문통신회사로 바꾸는 것은, 유선전화(일반통신)와 이동전화(특정통신)가 결합하는 개인휴대통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이는 "미국전신전화(AT&T)나 브리티시텔레콤(BT) 같은 외국의 대형 통신사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경쟁·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신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 이번 개편안에는 △서비스별로 지배사업자는 요금을 규제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자유화하며 △공정경쟁 보장 등 정부의 규제기능을 통신위원회에 맡기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그러나 시외전화 경쟁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심한 상태이다. 한국통신이 맡고 있는 시외전화는 지난해 매출액이 1조8천5백25억여원에 이른다. 이는 시내전화요금 1조2천4백여억원보다 50% 많은 것이고 이동전화보다는 6배가 많은 것이다. 한국통신 전체 매출액(5조5천억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나 된다. 이 때문에 데이콤·한국이동통신 등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체신부는 경쟁체제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통신은 시외부분에서 벌여 시내부분 적자를 메우고 있기 때문에, 시내요금을 올리지 않고 경쟁을 도입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쟁체제 대신 전국 단일요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시외전화 수익을 낮추기 위한 요금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개인휴대통신과 저궤도위성통신도 주요 쟁점 사항이다. 건물 안에서는 무선전화(코드리스폰), 밖에서는 이동전화로 되는 개인휴대통신은 유선통신으로 볼 것이냐 무선통신으로 볼 것이냐가 가장 큰 논쟁거리이다.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든 종합통신사업자를 포함해 1~2개 전국사업자와 몇개의 지역사업자를 올해 안에 선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개인휴대통신을 전세계로 확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저궤도위성통신은 국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내 사업자선정작업은 사업이 가시화할 때까지 미룰 것으로 보인다.

## 상공자원부

### 415T 종합산업정보망

3백여개에 달하는 상공자원부산하 관련단체 및 기관을 하나의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종합산

업정보망이 새로 구축된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문서전달방식에 의해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보통신망을 운영중인 10개단체는 물론 국내 모든 산업부문 총3백12개의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을 하나의 정보통신망으로 묶어 각종 정보자료의 교환은 물론 입찰의 수·발주 및 계약업무 등 모든 민원업무에 전자문서 교환(EDI)을 실현하도록 할 계획이다.

97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산업정보망이 구축될 경우 각단체 및 기관이 각종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며 내·외부기관간의 전자메일(E-Mail)이 가능해지는 외에 업체들의 각종 대정부업무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구축되는 산업정보망을 상공자원부의 행정전산화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공전산망과 접속하여 각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정보공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무역망·연구망·통관망 등 기존의 대형 정보망과의 접속을 실현하여 단일종합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상공부는 최근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정보망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이달중에 용역 및 전담사업자의 선정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산업정보망구축사업추진요령을 제정, 운영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과 공업발전법 등에 사업근거 및 지원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종합산업정보망을 구축하기로한 것은 현재 단체별로 가동중인 개별 정보망이 보유평정보량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기구축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 공공 뉴스

### 한국통신

#### 전국5대도시 연결하는 대용량 광전송로 구축

서울·대전·부산 등 전국 5대 도시를 연결하는 대용량 광전송로가 구축되고 서해안에 국제통신용 전용관문국이 건설된다. 또한 지금까지 시내·시의·국제 등 단위시설별로 관리되어온 통신망관리시스템이 앞으로는 종합망을 비롯해 전국망·지역망·정보통신망 등으로 분리돼 구축된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통신선로의 다원화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이를 토대로 통신망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월 종로5가 통신구 화재에 따른 비책으로 마련된 이 계획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안정적인 시외전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전국 5대 도시를 잇는 대용량 광전송로를 구축하고 전국을 격자형 기간전송망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망의 중심지역인 대전지역에는 기존의 전송로는 별도로 우회전송로를 구축하고 시내국간전송로의 경우 유선망에 이어 무선망을 설치하는 등 통신망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또 현재 서울과 부산 등 기존의 국제관문국을 서해안지역에도 추가로 건설, 국제통신망을 다원화하는 한편 미국·일본등 선진국들의 통신사업자와의 해저 광케이블건설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이어 수도권지역 통신망의 경우 서울권을 비롯해 인천권·수원권·평택·안성권 등으로 블록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는시외관문국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번에 마련한 기본 계획을 토대로 올 상반기까지 통신망관리 첨단화 계획 및

통신망관리시스템 구축 실현방안 등 세부계획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 공공정보 서비스 확대

하이텔이 무료로 제공하는 공공정보가 더욱 다양해 진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을 문답식으로 쉽게 찾아볼 수도 있고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운 우리 문화재를 사진이 곁들인 자세한 설명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학습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한국통신(사장 조백제)은 오는 11일부터 하이텔을 통해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농림수산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률정보”, 문화재관리국에서 제공하는 “문화재 정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공개소프트웨어정보”,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국립중앙 도서관문헌정보” 등 5종의 공공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지난해 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하이텔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5종의 정보가 추가되어 한국통신이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교육·정보통신·미아찾기·증권·산업정보·문화정보·기상정보·소비자정보 등 16종에 3만5천장의 화면을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었다.

하이텔 공공정보는 하이텔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화이용료외에 별도의 정보 이용료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제공 정보의 질적·양적 개선으로 서비스이용 또한 크게 증가하여 지난 3달 현재 월 총 이용횟수가 24만건, 이용시간이 1만5천시간에 이르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ETRI, 데이터베이스(DB)서비스 시스템 개발 착수.**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 이의 핵심SW가 될 “데이터베이스(DB)서비스 시스템”이 오는 97년까지 국내 기술로 개발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소장 양승택)는 멀티미디어 DB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술인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및 멀티미디어 응용시스템 개발도구, DB구축도구 등의 개발과 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DBMS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ETRI는 그동안 “바다I” 플래시(실시간검색시스템), “바다II” 등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총 50억원의 예산과 16명의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한편 관련학계의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ETRI가 개발키로 한 시스템중 멀티미디어 DBMS의 경우 기존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을 최대한 극복, 처리속도를 더욱 빠르게 가격을 낮추는 한편 DB서비스분야의 핵심기술인 검색기술을 크게 향상시키는 등 DB서비스 분야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최근들어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DBMS의 개발은 정보통신망 분야에서 절대 필요한 실시간 DBMS개발을 목표로 PCN 등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및 B-ISDN(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등의 사업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ETRI 컴퓨터연구단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 B-ISDN 등과 같은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대에 생겨날 전자도서 및 VOD(주문형비디오) 등의 효율적인 개발과 기존 서비스의 고급화를 수행하는 핵심SW가 됨은 물론 국내 DBMS 관련 기술개발의 체계화와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법원

### 대법원, 통신망이용 서비스 계획안 마련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퍼스널컴퓨터를 이용한 PC통신으로 소송절차 및 소송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망이용 대국민 서비스 계획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천리안.하이텔 등 PC통신망 업체들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인 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계획안은 민원인들이 사건번호나 소송당사자중 한명의 이름을 PC에 입력하면 재판 일정·결과 등을 알 수 있는 “소송진행상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민원인들이 소송절차를 묻기 위해 법원에 수시로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쉽게 해설, PC통신을 통해 이를 조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밖에도 오는 8월부터는 PC통신을 통해 등기신청을 접수하고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판례를 입력해 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판례조회서비스의 시행도 검토중이다.

## 관세청

### 세관별 수출입통계 DB시스템 구축

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등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수출입 통계를 일선 세관에서 직접 조회, 생산할 수 있는 “세관별 수출입통계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 시스템의 가동으로 세관별·국별·상품별·거래형태별 수출입실적등의 무역통계를 신속하게 검색·조회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나 무역업체·관세사등에 신속하게 제공해줌으로써 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줄 수 있게 됐다고 밝

혔다.

각 지역 세관에서 조회가 가능한 수출입통계는 \*세관별·품목별 수출입 실적 \*세관별·국별 수출입실적 \*세관별·거래형태별 수출입실적 \*세관별·제조과정별 수출입실적 등이다. 그동안 일선 세관이나 지방자치 단체 등이 품목별 수출입실적을 알아 보려면 관세청 본청에 공문으로 요청해야 했다.

## 국립보건원

### 국립보건원 보건정보 DB, LAN구축

국립보건원은 각종 보건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주요 보건 정보DB 및 원내 근거리통신망 구축을 통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립보건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원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최근 전담사업자 선정에 착수했다.

국립보건원은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 등 국가검정업무와 각 분야별 의뢰 시험 등 검정관리 업무 개발하고 치과 의사 등 16개 종목의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접수 및 현황, 합격자 관리 등 국가시험 관리업무도 전산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식품 등에 대한 각종 고시 및 예규, 기준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문서 유통시스템도 구축, 전자결재 및 문서관리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국립보건원은 특히 각 사무국 및 실험동 등을 연결하는 LAN을 구축, 정보 공유체제를 갖추는 한편 감염질환 세균역학DB, 일본뇌염 발생정보 DB, 표준균주DB, 생약정보DB, 식품중 잔류농약 함유정보 DB, 음용수 검사정보DB 등 각종 전염병 및 위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점차 구축해 나

가기로 했다.

## 통계청

### 통계청, 통계정보 확대 : 민간 VAN사업자 통해 일반에 공급

정부는개방화·정보화·국제화추세에 대응, 통계청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만 한정적으로 공급해왔던 통계자료정보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일반에 공급키로했다. 또한 이미 공표된 자료만의 일반공개에서 탈피, 신뢰성이 낮은 일부 통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공개자료도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계정보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3월 처음 통계정보공급을 개시한 한국증권전산을 포함, 데이콤 등 8개 VAN사업자가 올하반기까지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계자료가 공급될 부가가치통신망과 개시시기는 이미 서비스에 들어간 한국증권전산의 STOCK-NET을 비롯, 한국신용평가의 KIS-LINE(4월), 데이콤의 천리안(6월), 한국무역협회의 KOTIS(6월), 한국기업평가의 KMCC-FINDS(6월), 한국신용정보의 NICE-TIPS(7월), 산업기술정보원의 KINITI-IR(하반기), 삼성데이타시스템(하반기)등 8개사이다.

또 통계조사용 사업체 명부·가구명부 및 통계조사용 기본지도등 개인·가구·사업체·단체 등이 식별되지 않고 비밀이 보호되는 범위내의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추출용에 대해선 기초개별자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간행물과 용지복사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통계정보에 대해선 이용자들의 다양한 자료활용을 돕기 위해 디스켓·마그네틱 테이프등 전산 매체에 수록,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은 한국통신과 공동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프로그램을 개발, 연내

국토인구·주택등 기초통계자료를 일반에 제공할 계획이다. 통계청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통계청이 91년 1월부터 가동해온 “통계정보 시스템(KOSIS)”에 저장된 국토·인구·노동·산업·국제·통계 등 20여개부문 5백여항목 약 44만 계열의 국내외 주요 통계자료에 대한 일반의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위해 통계청은 통계자료제공규정(통계청훈령)의 각종제한을 현실에 맞춰 제정 및 개정했다. 이와관련, 통계청은 이같은 정보공개 및 확대를 통한 민간 수요 대처를 위해 대행기관 지정을 비롯, 향후 통계정보에 대한 국민 모니터제를 실시 하는 등 통계관련 홍보기능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 국정/공공뉴스 종합

### 한 일 “정보고속도” 기술협력

“인포메이션 수퍼 하이웨이”로 불리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야심찬 계획이 세계 각국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공동주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가 차세대 전자기술과 산업을 주도할 목적으로 내세운 “수퍼 하이웨이”는 일본을 비롯한 전자 강국들에게 새로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야심찬 이 계획은 레이건 행정부의 “스타워즈 계획”이 그렇듯이 미래록은 물론 전세계를 향한 방대한 종합 전자기술 개발 계획이다.

계획의 무게가 큰 만큼 그에 걸맞게 고어 부통령의 진두 지휘하에 관련산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 첫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 김영삼대통령의 일본 방문때 한일 양국은 차세대 초고속 정보 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상호 협력하에 공동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실무차원에서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아직 세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이번의 한일 양국의 공동기술개발 추진은 차세대 전자기술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의 한일 협력은 과거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함에 따라 빚어진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기술을 공동개발하자는 보다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양국간 기술 협력패턴이 바뀌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이란 수십에서 수백 Gbps의 초고속 전송속도로 방대한 정보를 보내고 받는 차세대 통신망으로 첨단 전자기술을 총동원 해야만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마치 지상의 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한 것과 같아 이 통신망을 "인포메이션 수퍼하이웨이" 또는 "정보고속도로"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정보사회의 기간이 되는 거대한 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보고속도로"가 구축되면 정부와 기업이 갖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뿐 아니라 국가간 화상회의, 원격 진료, 원격 교육, 멀티 미디어 활용 등 사회기업 생활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물류부문 종합전산망 구축 활기

유통·운송 등 물류관련 업무의 복잡한 서류절차를 컴퓨터를 통해 처리 하는 물류부문 종합전산망 구축이 정부 및 민간기업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 VAN 업체들은 최근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일환으로 물류부문 종합전산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개별 기업이나 기관단위로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상호연계, 통합하는

작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전산망을 연계해 종합전산망이 완성될 경우 총물류비용의 10%선인 연간 3조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물류관련 전산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상공부·체신부·관세청·해운항만청·교통부 등이며 민간기업으로는 데이콤·한진그룹·포스데이터·삼성데이터시스템 등이 이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정보통신산업통계 DB서비스 개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최근 정보통신산업에 관련된 통계DB(데이터베이스)와 문헌DB를 구축, 'CCPA-LINK'란 이름으로 회원사 및 통신관련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통계정보는 정보통신사업, 전기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컴퓨터보급, 기술인력 배출 및 고용 등 6개 분야로 돼 있으며 문헌정보는 유관기관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정보통신관련법령, 기술도입현황, 컴퓨터프로그램등록현황, DB제작 및 보급등에 관한 문헌정보, 정보통신자료실로 구성돼 있다.

정보통신자료실에서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협회동정 및 발간물등을 소개하고 있다. 협회는 오는 6월까지 정보통신인력의 구인 및 구직, 연구장비의 이용 안내정보와 함께 개발기술 및 필요기술의 공급과 수요를 제시하는 테크노마트(기술교환시장)를 CCPA-LINK내에 운영할 예정이다.

또 8월까지의 세계전기통신통계를 추가하며 현재의 도표 및 그래프표현기능을 보강 향후 몇년간의 예측도 가능하도록 예측기능을 갖춘 계획이다. 3월말 현재 70개의 회원사와 8개 유관기관을

포함해 82개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 전국화물자동차운송 연합회 육성부문화물정보시스템 구축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공제조합은 육성부문 화물정보시스템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운송연합회는 최근 육성부문 화물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전담할 별도의 물류전산과를 설치, 운용에 들어가는 한편 전국 시도 조합원이 제공하는 각종 육성화물 데이터베이스(DB)구축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공모하기로 하고 남양 컨테이너화물(주), 특송업체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바 있는 CTI(주), KOCS(주) 등 전문업체로부터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출받아 심사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연합회 및 공제조합은 지난 3월 서울·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 14개 지점과 36개 시도영업점을 통신망으로 연결해 화물운송의 편도운행 및 공차 비율을 줄인다는 화물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국내DB일반

### 삼성데이터시스템, 삼성그룹 정보고속도로 96년 구축

삼성데이터 시스템(대표 남궁석)은 데이터·이미지·음성·종합유선방송(CATV) 등 그룹내 모든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합 수용하는 삼성그룹 정보고속도로를 오는 96년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삼성데이터시스템(SDS)은 질 좋고 값싼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으로 그룹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위한 사업근간을

마련 하기 위해 음성·데이터·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수용하는 그룹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S는 이에 따라 우선 올해안에 약 3백억원을 투입, 그룹내 금융망·전자망 등 별도로 운영되는 망을 모두 수용, 그룹망을 완전 통합하고 95~96년중에는 무선·위성 CATV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SDS는 연내 삼성 그룹 부가가치 통신망(S-NET)의 T1회선을 현재 90회선에서 2백회선으로 확대하고 접속지역도 현재 7개 노드, 22개 접속점(AP)에서 9개노드, 36개 AP로 확대하는 한편 96년까지는 이를 77개로 늘려 전국 대부분 지역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까지 삼성생명 등 금융망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망을 수용, 그룹망을 완전 통합하고 오는 6월부터는 프레임릴레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SDS는 2단계로 내년부터는 무선·위성통신시스템과 그룹내 CATV방송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음성·데이터망도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 서비스 종목도 대폭확대, 올 6월 프레임 릴레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올 상반기중에 창원지역을 대상으로 음성·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 그룹으로 확대하며 영상회의 서비스도 올 연말까지 삼성전관에 대해 시범서비스한 후 내년말까지 전 그룹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가정용 "멀티" 세계시장 주도 야심

금성사·삼성·전자·현대전자 등 국내 AV업체가 본격적인 시장형성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AV기기의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보·가전시대에 접어 들고 있는 향후 세계 가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

고 있다.

특히 그동안 소니·히타치·마쓰시타·JVC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업체들에게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긴 채 “뒷북”만 계속쳐 온 국내업체들로서는 일본 업체들에 한발앞서 상품화한 비디오 CD·대화형디지털비디오 등 차세대AV 기기를 중심으로 한 가정용멀티미디어시장에서 대반전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가정용 멀티미디어시장의 경우 미국업체를 제외하고는 일본 업체들이 이렇다할 제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비디오CDP·대화형디지털비디오 등의 기술근간인 MPEG기술등에 있어 우리의 기술이 일본은 물론 미국선발 업체들과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컬러TV나 VCR등과 같은 2세대 가전제품과는 달리 한판승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국내업체들이 내수 보다는 수출에 치중하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화필립스사, 미3DO사등 가정용 멀티미디어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있는 유수 외국기업들이 국내업체들을 앞다퉈 자사 패밀리로 끌어들이려고 제후를 서두르고 있는 현상도 국내업체의 기술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미 필립스사가 대화형 디지털비디오분야에서 금성사와 삼성전자를 각각 자사 기술제품 파트너로 선정했으며 미3DO사역시 금성사와 삼성전자를 패밀리로 끌어들이기 위해 올초 파격적인 조건으로 기술제후를 체결하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포맷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차세대정보가전 세계 시장에서 국내업체들의 향배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 **PSTN용 디지털 다중화장치 장백정보통신 개발 성공**

일반전화망의 회선을 증설하지 않고도 기존선

로를 4회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PSTN용 디지털 다중화장치(DAML)가 국내최초로 개발됐다.

이에 따라 기존의 PSTN회선을 별도로 증설하지 않고 3회선의 추가 증설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통신 사업자가 이를 도입할 경우 막대한 회선증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장백정보통신(대표 서영택)은 종합정보통신망(ISDN)의 전송 기술인 “U인테페이스”를 적용해 기존의 PSTN망을 1백60Kbps의 디지털 전송로로 전환하고 음성신호 전송에 적합한 32Kbps의 전송속도로 분할해 4개의 전송로를 확보할 수 있는 PSTN용 디지털 다중화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장치는 앞으로 음성압축 및 복원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8회선 이상의 회선증설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디지털 다중화 장치는 이스라엘이 지난 90년대초 최초로 군사용으로 개발한데 이어 프랑스 알카텔사, 미 RAYCHEM사 등 몇개 국가만이 개발에 성공한것으로 장백정보통신은 지난 2년간 5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KT) 등 기간통신 사업자는 건물노후 등으로 인한 물리적 한계와 경제적인 여건으로 가입자 선로의 신설과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코오롱 정보통신 중역정보시스템 개발**

코오롱 정보통신(대표 송대평)이 문자 및 이미지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수 있는 중역정보시스템(EIS)을 개발했다. 코오롱이 자체 개발해 이달부터 솔루션 베이스의 영업에 나선 이 제품은 터치스크린, 마우스, 스캐너등을 활용해 수치나 문자정보뿐만 아니라 그래프,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을 쉽게 처리할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IBM, 후지쯔, HP 등 메인 프레임과 유닉스 계



열의 호스트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수 있으며 이들 데이터의 가공처리에 있어 별도의 마감작업없이 실시간으로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그래프 및 이미지로 구현할 수있다.

자체 한글이 지원돼 별도의 한글 카드가 필요 없으며 그래프, 차트 등 자체개발한 각종 그래픽 라이브러리로 제공된다. 단일 사용자에서, 랜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호스트 접속 등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할수있으며 코오롱 정보통신은 자체 개발한 EIS 툴을 비롯해 그래픽 툴, 호스트 프로그램 등을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토틀 솔루션을 갖추고 솔루션 베이스의 영업을 시작했다.

### 두산그룹 정보통신사업 본격화

두산 그룹이 “두산정보통신”이라는 자회사를 설립, 정보통신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두산그룹 연구소인 두산기술원의 정보시스템 본부를 분리, 자본금 30억원 규모의 두산정보통신(대표 민경훈)을 이날자로 설립했다고 밝혔다.

두산정보통신은 이와관련 생활문화(식품·음료·주류), 기술소재(기계·건설),정보유통(유통·출판·광고)의 3개 사업부와 정보기술에관한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정보기술연구소 등 4개 주요 조직과 총2백50명의 인원으로 출범한다.

두산정보통신은 시스템통합(SI)과 부가가치통신망(VAN) 서비스사업을 주력으로 두산그룹의 공용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은 물론 소프트웨어 유통사업, 자동화 부문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VAN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룹망인 “두산넷워크”를 흡수, EDI·전자우편·회선 재판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산정보통신은 우선 당분간 그룹내 사업에 주력, 올해 약 1백8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편 연말부터는 공공부문 등 대외영업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 오는 2000년에는 매출규모를 2천억원까

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 쌍용컴퓨터, 상호신용금고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 활발

쌍용컴퓨터(대표:張根浩)가 독자적으로 개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용 온라인 종합전산화시스템인 SAMS2000을 국민상호신용금고와 창업상업신용금고, 풍국상호신용금고에 공급한다.

SAMS2000은 기존에 공급했던 SAMS를 금리 자율화, 금융실명제 등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에 알맞게 대폭 개선한것으로 기존 SAMS에 비해 그래픽을 이용한 경영자정보시스템(EIS)이 추가 되었으며, 현시점에서의 영업결과를 정확히 진단, 향후 영업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결산 추가 시스템이 추가됐다.

또한 금리자율화에 따라 고객기여도별 차등금리, 수신금리기준 여신금리 등 금리관리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창구 직원별로 당일 현금시재액의 즉시 파악 및 창구별 마감이가능한 출납원 마감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 또는 개선 되었다.

### 매일경제신문사, 제4회 韓·日 정보활용강연회 개최

매일경제신문사는 국제경쟁시대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내 기업의 고도 정보활용을 위해 제4회 한·일 정보활용강연회는 국제화 탈국경화로 치닫는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정보의 신속한 입수와 고도활용에 기인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 강연함으로써 기업의 정보관리와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에이텔주식회사 김대규 사장과 일본경제신문사의 다나카 나루히코 DB국장 겸 기사정보부장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